

단통법 시행 두달

효과 있다? 없다?



단통법(단통법)을 시행한 지 지난 1일로 두 달이 되는 가운데 이동통신 시장은 초기의 혼란을 극복하고 외형적으로는 다소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휴대전화 단말기 구입 가격이 단통법 시행 이전보다는 여전히 높게 느껴지는 등 여전히 '전국민 호경법'이라는 지적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다.

이는 단말기 가격이 소비자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까지 낮아지지 않는 한 언제든 다시 '아이폰6 대란'과 같은 상황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휴대전화 시장 회복세...번호이동 규모, 단통법 시행 전에 근접 =단통법 시행 두 달을 앞둔 현재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은 단통법 시행 이전 수준으로 점차 회복되는 모습이다.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10월 무선통신서비스 통계 현황을 보면 지난달 말 기준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5681만310명으로 전월 대비 6만5534명 늘어났다.

전체 가입자 증가폭만 보면 기존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지만 일 평균 가입자 수를 기간별로 나눠보면 1주차(10월 1~7일) 4만4500명, 2주차(8~14일) 5만2900명, 3주차(15~21일) 5만400명, 4주차(22~28일) 5만3900명 등으로 시간이 갈수록 증가세가 뚜렷하다.

휴대전화 시장의 과열 지표로 사용되는 번호이동 규모를 보면 휴대전화 시장의 안정화 추세가 더 명확히 드러난다.

이달 들어 27일까지 전체 번호이동 규모는 42만4182건으로 단통법 시행 첫 달인 10월(27만8803건)보다 크게 늘었다.

특히 11월 번호이동 규모는 단통법 시행 직전인 9월(48만7115건)에 근

접한 수치다. 이런 번호이동 규모는 소비자들이 일단 단통법으로 인한 시장 변화를 서서히 수용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이통사, 가입비·위약금 폐지...소비자 혜택 증가 =일단 이통사들이 잇따라 소비자 혜택을 늘리는 조치를 내놓은 것이 휴대전화 시장 안정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이통 3사는 단통법 시행 이후 가입비와 위약금을 폐지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내렸다.

SK텔레콤은 가입비 폐지 정책을 정부 계획보다 빠른 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했고, KT는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가입기간 받은 할인금액만큼을 내야 하는 위약금 제도를 없앤 '올레 순액 요금제'를 출시했다.

SK텔레콤도 뒤따라 요금 약정 할인 반환금을 폐지했으며 LG유플러스도 위약금 폐지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 초기에 비해 휴대전화 단말기에 대한 지원이 늘었지만 여전히 단통법 이전과 비교하면 비싸다는 것이

소비자들의 대체적인 인식이다.

단통법 시행 이전 번호이동과 약정 등을 조건으로 불법 보조금을 받아 거의 공짜 수준으로 살 수 있었다는 인식에서, 이통사들이 지원금을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있기는 하나 일부 구형 모델을 제외하면 지원금이 단말기 가격을 상쇄할 정도로 나오지는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휴대전화 시장이 완전히 살아나려면 단말기 출고가를 내리고 보조금을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업계 관계자는 "결국은 최종 구매가가 소비자가 볼 때 합리적인 수준까지 조정되지 않는다면 이통시장의 완전한 정상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면서 "불법·편법 지원에 대한 유혹의 여지도 남아있게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11월 기준 5681만명 가입...전월비 65000명 ↑

번호 이동 49만건...단통법 시행이전 수치 근접

SK-가입비, KT·LGU+ - 위약금제 폐지키로

소비자 "여전히 비싸...출고가 내리고 보조금 높여야"

SKT·KT, 아이패드 에어2·미니3 출시

애플의 태블릿 제품인 아이패드 에어2(iPad Air2)와 아이패드 미니3(iPad Mini3)가 3일 SK텔레콤과 KT를 통해 국내 출시됐다.



애플이 새롭게 선보이는 아이패드 에어2는 무게 437g, 두께 6.1mm으로 전세계에서 가장 얇은 태블릿이다. 반사 방지 코팅이 된 레티나 디스플레이와 10시간 이상 지속되는 배터리, 2세대 64비트 A8X칩, 새로워진 아이사이트(iSight)와 페이스타임(FaceTime) HD 카메라, 더욱 빠른 와이파이(Wi-Fi)와 롱텀에볼루션(LTE) 무선 네트워크를 탑재해 뛰어난 성능을 자랑한다.

아이패드 에어2와 아이패드 미니3는 각각 16GB, 64GB, 128GB제품으로 출시되며 아이패드 에어2의 출고가는 각각 73만2600원(16GB), 85만3600원(64G), 97만4600원(128GB)이다. KT가 단독 판매하는 아이패드 에어 2 와이파이 모델은 최대 17만원 정도 저렴하다. 아이패드 미니3는 63만4700원(16GB), 75만5700원(64GB), 87만6700원(128GB)이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LGU+는 5만원대 중 화웨이 스마트폰

LG유플러스가 국내 이동통신사 가운데 처음으로 선보인 중국 화웨이 스마트폰 X3의 실패가가 5만원 안팎으로 결정됐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일 X3의 출고가를 33만원으로 정하고 여기에 단말기 보조금을 더해 요금제에 따라 판매가를 4만9000~5만5000원으로 확정 공시했다.

LG유플러스의 공시에 따르면 고가 요금제인 'LTE8 무한대 89.9'에 가입하면 보조금 28만5000원을 받고 4만5000원에 X3를 손에 댈 수 있다. 'LTE8 무한대 80' 요금제를 쓰면 보조금 28만1000원에 판매가는 4만5000원, 'LTE 음성 무한자유 69' 요금제는 보조금 27만5000원에 판매가가 5만5000원이다.

/연합뉴스

금주의 추천앱

운전하기 힘든 계절인 겨울이 돌아왔다. 겨울철 기상 악화와 각종 기계 결함으로 운전이 문제가 발생하게 쉬운데, 오늘은 스마트 애플리케이션으로 안전운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마카롱/제작:Macarong Team/안드로이드, 아이폰
마카롱은 주유내역과 정비기록등을 손쉽게 기록하는 차계부 앱이다. 위치정보를 통해 주유소 단가를 자동 입력해서 간편하게 주유내역을 입력하고, 각종 통계그래프 제공으로 차량기록을 한눈에 점검할 수 있다.



베프카/제작:HITEX/안드로이드
베프카는 차와 관련된 문제를 확인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앱이다. 엔진오일, 타이밍 벨트 등의 각종 점검시기를 확인할 수 있고 사고처리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세차왕/제작:Handscmmunication/안드로이드
겨울철 눈길에 묻은 얼룩집을 차량을 부식시키기 쉽다. 세차왕은 출장 세차 예약 및 세차장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이다. 또한 '세차 지수' 기능을 통해 세차 해야할 시기를 미리 알려준다.



DESIGN ZOOOS 제공:디자인주소 (대표 정우주 tiger@designzoos.com)

아이디어 이 피었습니다!

●홍보지 및 판촉물

●전단지

●현수막

●상패

●상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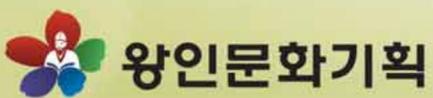
●전단지

●각종 인쇄물

●현수막

●각종 인쇄물

●홍보지 및 판촉물



왕인문화기획

Tel. (061)471-1717~1718
Fax. (061)471-1719
E-mail. ansqudtjs12@hanmail.net

